“스님 관심 덕분에 다시 찾아왔어요!”

4개 대학 동아리 ‘영남결사’
부산 한마음선원 템플스테이
학생들 호평에 다시 참가해
각 동아리 전법지원금 전달도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영남결사’ 학생들과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학생 포교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다. 각 교구본사에서 대학생 전법과 포교를 위한 기금 전달이 이뤄지면서 대학마다 불교동아리 활동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4개 대학교 불교동아리의 결사체인 ‘영남결사’의 활동 역시 눈길을 끈다.

영남결사는 부산대, 경상대, 창원대, 대동대 등 부산경남 지역대학의 불교동아리 연합체다. 영남결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4월 5~6일 1박2일간 다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을 찾아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명상치유와 힐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4개 대학의 법우 16명이 참여했다. 영남결사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다시 찾은 것은 법우들의 높은 만족도에 더해 대학생 전법에 뜻을 세운 부산지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져 온 결실이다.

1일차에는 △윤회담 △스님과의 대화 △명상 △촛불명상이, 2일차는 △새벽예불 △소감 나눔 △회향법어 △후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첫 프로그램 ‘윤회담’에서는 서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딛고 도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채웠다. ‘스님과의 대화’는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쉽게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어진 ‘명상과 촛불명상’은 자신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초 형상으로 직접 만들어 태우며 명상하는 시간. 자신이 만든 초가 녹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녹여가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감문에서 이번에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지 부산대 불교동아리 회원(건축학과)은 “그동안 혼잡하고 괴로웠던 내면을 정돈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깊은 바다는 소용돌이가 쳐도 잠잠하듯이 모든 상념과 고통도 한마음으로 회귀하여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자신의 내면에 한마음이 있다는 걸 믿고 주변 인연에 상처받거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데서 벗어나 중심을 단단히 세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됐다”며 “이렇게 만난 한명 한명이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소중한 씨앗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마땅히 할 일”이라고 회향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대학생 전법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불교동아리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열악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다.

김건우 부산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대학생 전법에는 무엇보다 사찰과 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다시 오게 된 것도 지난해 행사 이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락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법문 책자 등 소중한 선물도 주시니 참여 학생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이런 학생들의 바람을 경청하고 회향의 자리에서 불교동아리 네 곳에 전법지원금을 전달했다. 동아리 회장들은 “이미 지난번에 받은 지원금으로 동아리 활동비도 유용하게 활용했다”면서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혜도 스님은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참된 삶의 길을 찾아 부처님 도량에 들어선 소중한 인연들”이라며 “내 마음의 무한 능력을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나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 늘 마음을 함께 내겠다”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보물 된 〈예념미타도량참법〉 보전 다짐

부산 선광사 소장한 권6~10
성문 스님 은사스님이 전해



보물지정서를 함께 든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부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는 4월 9일 경내 대웅전에서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성문 스님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선광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주지 성문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전해주신 불교의례집이라 더욱 의미가 있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집이라 무엇보다 소중한 뜻으로 생각한다”며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잇고 소중하게 가치를 증명 받은 것만 같아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도 불교문화에 담긴 성보의 뜻을 널리 알리고 잘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선광사에 국가보물로 지정된 유산이 있는 것은 사상구 구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함께해주신 모든 신도님들과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관하고 전승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15년 전 성문 스님의 은사 일월 스님이 전달한 것으로 선광사에 보관됐다. 성문 스님은 문화재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학술연구 및 논문 등을 발표하고 가치를 증명했으며, 지난 2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247호로 지정됐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는 〈귀의서삼방보〉 〈극락장엄〉 〈발원왕생〉 등 13편의 불교의례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의식집이다. 조선 성종 5년(1474)에 판각해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조선 초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시 안녕 기원한 산신재

관음사, 쌀 1080㎏ 기부도



부산 범내산 관음사(주지 천웅 스님)가 4월 7일 경내 일원에서 ‘제4회 산신재 및 용왕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천웅 스님을 비롯해 신도 및 지역민이 동참했으며, 관음사는 산신재를 통해 부산시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다. 아울러 백미 1080㎏을 소외이웃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역민을 위한 화합 한마당을 개최해 65인치 대형TV 등 다양한 경품을 선물했다.

주지 천웅 스님은 “용왕을 모신 것은 바다를 상징하는 지역의 정서를 담고 좀 더 친근하게 지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편”이라며 “지역민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원력을 담았다. 나눔과 포교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교종, 국태민안·평화통일 기원

수륙대재 · 동물 추모재 봉행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총무원장 대풍 스님)은 4월 7일 경주 감포 문무대왕릉 봉길리 해변 일원에서 ‘국태민안과 평화통일 기원 수륙대재’ 및 ‘반려동물 극락왕생 발원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대재에는 총무원장 대풍 스님을 비롯해 석용 스님(지화장 인간문화재 경도63호), 해진 스님, 청명 스님 등 종단 소속 10개 사찰에서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대풍 스님은 불자들의 신행, 반려동물에 대한 인연 및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수륙대재를 통해 불자님들이 조상과 부모에 감사함을 느끼고 효를 실천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피로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려동물인구는 1500만여 명에 이른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선교종 소속 사찰은 반려동물을 위한 극락왕생 천도재를 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파라미타, 2024년도 발대식

4월 6일, 신입생 환영회 겸해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4월 6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신입생 환영회 및 2024년도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총재 정오 스님, 부총재 도담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협회장과 운영위원, 학생 등 370여 명이 동참했다.

총재 정오 스님은 “파라미타 활동의 근간인 불교는 여러분이 성장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고 등불이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마음자리가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부산파라미타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지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러분 일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힐링할 수 있는 활동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원불전


법당특별장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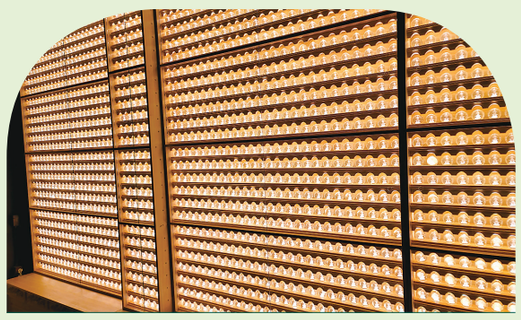
장엄등 절찬 판매


만월등


팔각등

장엄등


도량장엄등


인 등


위 패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www.boryeon.com 시공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NAVER 블로그 검색 : 보련기획